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밝은 미래를 상상하자!



박 병 인

- 1986년 10월 생
- 전주 동암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합격

I. 서

저는 수험기간 동안 고시계의 다양한 합격수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글은 수 많은 공부방법 중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한가지의 공부방법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공부방법

1. 1차 시험 (3번째에 합격)

(1) 민법 (박기현 강사의 핵심정리 민법+진도별 모의고사)

1차 시험에서 2번의 실패를 경험한 저는 합격을 위해서는 민법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1차 시험을 공부하면서 지원립 교수님의 민법강의와 권순환 강사님의 객관식 민법판례집, 정일배 강사의 객관식 민법판례, 박기현 강사의 핵심정리 민법 교과서 등 모두 한번씩 본 상태 였는데, 그동안의 실패의 원인은 양을 너무 늘려서 막판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당시에는 박기현 강사의 핵심정리 민법 교과서만 보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객관식의 감을 익혔습니다.

(2) 형법 (신호진 강사의 형법요론+진도별 모의고사)

형법도 양이 가장 적은 요론으로 봤습니다. 책에 거의 모든 판례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같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3) 헌법 (정회철 강사의 기본강의 헌법+진도별 모의고사)

판례집은 이미 2년동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불던 해에는 기본서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4) 소 결

1차 시험은 양을 늘리지 않고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알아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OX를 가려낼 수 있어야 객관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 고득점을 할 경우 어려운 민법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득점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2. 2차 시험 (재시 합격)

(1) 예비순환의 중요성

대개 예비 순환은 1차 합격의 기쁨에 젖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이 거듭될수록 예비 순환에 열심히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비 순환은 이름 그대로 예비 순환이 아니라 실질상 1순환 이라고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헌법 (정회철 사례 헌법연습 + 김유향 핵심암기장)

헌법은 기본적인 것만 암기하고 사안의 적용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시험에서는 순발력과 논리력이 중요한데 채점하시는 교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제시가 필요 합니다.

(3) 행정법 (조현 통합행정법)

행정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김연태 교수님의 사례집에 있는 사례

5개 정도만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연태 교수님 사례집 양이 너무 많아 거의 못보시는데 다 보지마시고 중요한 사례 5개 정도만 추려서 보시길 추천 합니다.

(4) 상법 (김혁봉 상법신강)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 이번 2차 시험 부터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지 모르겠으나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5) 민사소송법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렵지만 반복 기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6) 형법 (이재상 강사의 더 형법)

사례를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부분을 몇 가지 암기하고 답안에 현출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또한 법조문을 제대로 적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형법정주의)

(7) 형사소송법 (이재상 교수님의 신형사소송법)

형사법 계열은 법조문을 제대로 적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법을 이해하는 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8) 민법 (노재호 민법교안)

민법은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 정도 사례를 푸는것도 좋고, 그것이 힘들다면 중요 판례 문구를 외우는 정도로 10분이라도 투자하셔야 합니다.

(9) 3순환부터 시험전날 까지 공부방법(★)

① 3순환부터는 교과서는 관례집이든 하나만 선택해서서 보셔야 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또한 3순환부터 5순환까지 10년치 기출문제집을 사서 매 순환당 3년치씩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기출 부분은 교과서에 몇 년 기출이라고 표시 하시면서 보시면 다음에 책을 볼 때 그 문제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기출문제에는 교수님들께서 각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논점이 들어있습니다. 사법 시험이 시행된 지 53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미 모두 한번씩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에서 기출 쟁점이라고 해서 배제 시키지 않고 단지 사례를 변형하여 논점을 찾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쟁점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 4일간의 2차시험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말들★)

(1) 첫 시험전날에는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4일이라는 장기간의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첫 날부터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과목이 전 날 밤새 본다고 해서 고득점 하는 것은 아니기에 맑은 정신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2) 첫 시험 치르고 오시면 아마 헌법과 행정법 과락 걱정에 펜이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렇습니다. 1년간의 그 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나만 못 본 것 같고 나머지 과목들을 고득점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똑 같습니다.

(3) 둘 째날 시험과목은 아시다시피 상법·민사소송법이라 그 방대한 분량에 힘드실 겁니다. 저는 첫 날 빼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교과서를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 못 본다는 가정 하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 날 시험이 민법인데 셋 째 날 까지 시험을 치르고 오시면 아마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고 정신도 만신창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웬지 민법만 남으면 시험이 거의 끝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 때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방심은 최대의 적입니다. 그리고 민법 3교시 시험은 50점짜리인데 그 전까지 100점짜리를 2시간 동안 푸는데에 시간이 익숙해져 있다가 1시간 동안 답안을 쓰는 데에 시간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3교시는 시험시간이 1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은 지금까지 보신 모의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은 뒤 법전을 찾고 관련 법조문을 적시해주고 법조문의 요건사실을 분설한 뒤, 사안에 적용하시면 기본점수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5)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7과목 모두 모든 쟁점을 다 잡아 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과목은 20~30점짜리 논점 하나정도는 생소한 것을 냅니다. 그렇기에 20~30점짜리 문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못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부디 다음 과목 공부에 매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준비물 Tip : 스탱와치(손목시계는 남은 시간을 정확히 체크할 수 없습니다. 스탱와치를 준비하면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으며 20초 남았을 경우라도 몇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기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펜 3자루이상(저는 2자루 준비 해갔다가 1자루는 긴장해서 너무 손목에 힘을 주다보니 부러뜨려 버리고 1자루는 잉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버려진 기억이 있습니다)

III. 끝맺는 말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으니 작년에 제가 공부하던 수험기간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합

격하는 영광의 순간을 상상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서 합격한 뒤 하고 싶으신 일들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러면 더욱 동기 부여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고통이 아닌 내 꿈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소식에 나보다 더 좋아해준 내 동생 병주, 현영아 고맙다! 그리고 나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옆에 있어 준 지영이와 함께 울고 웃고 한 우리 스터디팀, 친척분들, 제 합격을 기도해주신 장경환 사관님과 물우 영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